



파리 올림픽 사격 메달리스트 김예지가 20일 전남 나주시 전라남도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54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25m 권총 여자일반부에 출전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25m 권총 여자일반부에 출전한 오예진. /연합뉴스



속사권총에 출전하는 조영재. /연합뉴스



파리 올림픽 사격 메달리스트 박하준이 20일 전남 나주시 전라남도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54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10m 공기소총 남자일반부 본선에서 사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파리 명사수들, 나주에 총출동

## 제54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개막... 26일까지 반효진·오예진·김예지 등 메달리스트 모두 출전

반효진(대구체고), 오예진(IBK기업은행), 김예지(임실군청), 박하준(KT) 등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약한 명사수들이 나주에 총출동했다. 올림픽 사격 메달리스트 7명을 비롯해 2600여 명이 출전하는 '제54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가 20일 나주 안창동에 위치한 전남국제사격장에서 막을 올렸다.

한국 사격은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수확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의 여운을 이어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올림픽 이후 첫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로 치러지는 봉황기 전국사격대회는 국내 5대 메이저 사격대회 중 하나로 1971년 태릉국제종합 사격장 개장을 기념해 시작됐다.

이번 대회에는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예진, 양지인(한국체대), 반효진(대구체고)을 비롯해, 은메달리스트 금지현(경기도청), 박하준, 조영재(국군체육부대), 김예지가 모두 출전해 눈길을 끈다. 여자10m공기권총에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오예진과 같은 종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는 이날 25m 권총 여자일반부 경기를 치렀다. 김예지는 4위, 오예진은 6위를 기록했다. 김예지와 오예진은 오는 22일 공기권총 여자 일반부 경기에서 다시 한번 과녁을 겨룬다.

올림픽 여자 25m권총 금메달리스트 양지인은 오는 23일 25m권총과 10m공기권총 여자 대학부 경기를 앞두고 있다. 한국 역대 하계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인 여자10m 공기소총 반효진은 오는 23일 10m공기소총 여자 고등부 경기에 나선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지현과 혼성 공기소총10m 은메달을 합작했던 박하준은 대회 첫날 진행된 공기소총 남자 일반부에 출전했다. 박하준은 개인전 결선에서 249.6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단체전에서 김상도·김준현·김종현(이상

KT)과 함께 2위를 기록했다. 21일 박하준은 50m 복사 남자 일반부 경기에서 다시 한번 총성을 울린다. 금지현도 이날 50m 3자 세 여자 일반부에 출전한다. 장성 출신 조영재는 오는 24일 속사권총 남자 일반부 경기를 치른다. 속사권총 종목 한국 최고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조영재는 파리 올림픽 사격 속사권총에서 빛나는 은메달로 한국 사격에 마지막 메달을 더했다. 한편, 제54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김진기 기자 jinggi@

## '장소연호' 페퍼스 이번에는 다를까? 새 시즌 담금질

### 22일까지 일본서 전훈 진행

페퍼저축은행 AIF페퍼스가 새 시즌을 앞두고 일본 전지훈련을 통해 담금질에 나섰다. 페퍼스는 지난 18일 일본 가나가와 가와사키 타마가와에 캠프를 차리고 타마가와 아레나에서 기본기 훈련과 연습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일정은 지난 4월 '기본기 잘 다져진 원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페퍼스 사령탑의 자리에 오른 장소연 감독 체제로 실시하는 첫 전지훈련이다. 장 감독의 선임은 페퍼스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중앙 보강과 전술, 분위기 전환 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페퍼스는 지난 19일 NEC 레드 로켓츠와 가에쓰 대학교를 상대로 연습 경기 3패전을 실시했다. 페퍼스는 2022-2023시즌, 2023-2024시즌 일본 V리그 2연패를 기록한 강팀 NEC와의 연습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2(20-25, 24-26)로 졌다. 이어진 가에쓰대와의 경기는 세트스코어 1-1(21-25, 25-23)로 마무리했다. 장 감독은 이번 연습경기에서 승패에 관계없이 선수단 전원을 고루 활용했다. 장 감독의 선임 이후 리베로 한다혜, 미들블로커 장위, 아포짓스파이커 바르바라자비치, 백업미들블로커 임주은, 아웃사이드히터 이예림, 세터 이원정이 팀에 합류했다. 이번 전지훈련은 새 얼굴들로 단장을 마친 페퍼스의 전력을 제대로 확인할 기회다. 주장 박정아도 올 시즌 '봄배구 진출'을 목표로



페퍼저축은행 AIF페퍼스가 새 시즌을 앞두고 일본 전지훈련을 통해 담금질에 나섰다. 사진은 페퍼스 선수단이 지난 19일 NEC 레드 로켓츠와의 경기에서 득점 후 기뻐하는 모습. <페퍼저축은행 제공>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새로운 시즌을 다짐하고 있다. 22일 NEC와의 연습경기로 전지훈련 일정을 마무리하는 페퍼스가 2023-2024시즌 'V리그 최다 연패'라는 불명예를 떨치고 '봄배구'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광주대 농구 유이비·양유정, 프로행 불발

### 2024~2025 여자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지명 못받아

한국 여자프로농구의 앞날을 빛낼 샛별들이 확정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0일 부천체육관에서 '2024~2025시즌 WKBL 신인선수 드래프트'를 개최했다.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을 가진 신한은행은 '재일교포' 홍유순(센터·179cm)을 지명했다. 일본에서 3x3 전문선수로 활약한 홍유순은 지난 2023년 국제농구연맹 3x3 아시아컵 당시 한국 대표팀 훈련 파트너로도 활동했다. 2순위 지명권을 얻은 BNK는 신장 187cm의 김도연(센터·동주여고)을 영입했다. 이어 3순위 하나은행은 송의여고의 정현(포워드·178cm)을 뽑았고, 삼성생명도 4순위로 춘천여고 최예슬(포워드·179cm)을 선택했다.

5순위 KB스타즈와 6순위 우리은행은 각각 송명여고의 송윤하(포워드·센터, 180cm)와 이민지(가드·176cm)를 호명했다. 1라운드 지명의 역순으로 진행된 2라운드에서는 ▲우리은행 정재원(가드·분당경영고) ▲KB 오카쿠치 레이리(가드·소인대학) ▲삼성생명 유하은(포워드·숙명여고) ▲하나은행 하지윤(가드·선일여고) ▲신한은행 김재은(센터·선일여고) ▲BNK 김보현(가드·인성여고)이 선발됐다. 한편 이번 드래프트에는 고교 졸업 예정자 22명, 대학 졸업 예정자 3명, 대학 재학 선수 1명, 외국국적동포 선수 1명, 해외 활동 선수 1명 총 28명이 참가했으며 그 중 12명이 지명됐다. 한편, 광주대 농구부의 유이비와 양유정은 지명을 받지 못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 '올림픽 멀티 메달' 신유빈 '한 달 휴식'

### 오른쪽 어깨 근육 미세 파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14경기 강행군을 펼친 끝에 동메달 2개를 수확한 여자 탁구 신유빈(대한항공·사진)이 어깨 부상으로 잠시 쉬어간다. 신유빈의 매니지먼트사 GNS는 20일 "신유빈이 오른쪽 어깨 근육 미세 파열 진단을 받았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사 권유에 따라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NS에 따르면 신유빈은 파리 올림픽 전부터

오른쪽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며, 경기를 치르면서 해당 부위 상태가 악화했다. 신유빈은 일단 휴식을 취하며 부상 결과를 살펴본 뒤 내달 9일 열리는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챔피언스 마카오, 같은 달 26일 시작하는 WTT 차이나스매시 출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즐거움

# 문화 산책

##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금)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